서울장충로타리클럽, 30년 전통의 저력있는 클럽

- 11월 16일(목) 팔래스호텔

서울장충로타리클럽(회장 박상훈)의 총재공식방문 행사가 지난 11월 16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클럽협의회에서 총재께서는 서울장충로타리클럽의 예년의 명성회복을 위해 회원 2배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로타리안 자녀들의 로타리클럽 가입으로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온 우리의 가치있는 Life Style을 자손들에게 로타리안으로서 넘겨주는 것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이 아닌 로타리 멤버십의 상속인 것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격려와 고무해 주신것에 부응한 화답으로 클럽에서는 5구좌의 PHF 약정으로 총재공식방문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신 총재께서는 로타리안 노래자랑을 개최해도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즐거워하시며 오붓한 분위기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3650지구와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 서울아리랑RC 총재공식방문

- 11월 18일(토) 새하늘교회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회장 민지희) 총재공식방문 행사가 11월 18일(토) 영등포구 새하늘교회에서 개최되었다.
클럽의 규모가 작아 작년처럼 대규모 클럽 행사에 조인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더라도 우리 자체 행사를 해 보자는 회원들의 뜻을 따라 조촐하게나마 행사를 준비하였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장소는 우리 클럽 초대 회장님이 목회하시고 있는 교회였고, 축하 행사도 작년만큼 화려할 수는 없었다. 작은 교회로 모시는 것이 적잖이 마음이 쓰였지만, 이순동 총재님과 소재선 지역대표님이 교회 장로님 이셔서 인지 우리의 초청 환영 행사를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 주셨다.
클럽 회장의 환영사를 들으시고 총재 연설을 위해 강단에 올라오신 이순동 총재께서는 이것이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시며, 회장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천천히 라도 나눔의 길을 잘 가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로타리가 많이 노령화 되어 있으니,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과 같은 젊은 회원들이 있는 클럽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영입하여 지구 평균 나이도 낮춰 달라 하셨다.
축하행사에서는 우리들의 공연이 감동적이라며 총재님께서 직접 앵콜을 요청하기도 하셨다. 훈훈하고 따뜻한 주회였다는 생각이다. 식순을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 및 오찬을 하며 우리 클럽 회원들은 총재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그저 아리랑 클럽 회원으로서의 멤버십만 느끼고 있었던 대다수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더 나아가 3650지구의 회원임을, 더 나아가 국제 로타리 회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은 2017 늦가을, 어느 토요일에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이순동 총재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글. 서울아리랑RC 회장 **민지희**

노원구 지역기반 클럽으로, 창립 30년 맞는 서울노원로타리클럽

- 11월 21일(화) 건영백화점 중식당

서울노원로타리클럽(회장 이헌우) 총재공식방문을 11월 21일(화) 7시 이순동 총재 및 9지역 박광호대표와 저희 서울 노원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Family Together'을 회원증강을 추진하자는 말씀과 회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철학을 회원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노원 로타리클럽은 1988년 7월 10일 1대 회장 문세영 회장님과 32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였으며, 노원구를 중심으로하는 지역기반 로타리클럽으로서 현재 20대 이헌우 회장과 13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창덕로타리클럽 창립 22년만에 최초로 여성회원 영입,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에 솔선수범

- 11월 22일(수) 서울클럽

서울창덕로타리클럽(회장 하종화)은 11월 22일 서울클럽에서 총재공식방문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로타리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과 이세진 4지역대표께서 우리 서울창덕로타리클럽을 공식방문해주셨으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많은 회우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창덕로타리클럽은 이순동 총재님 공식방문 기념주회를 맞이하여 1995년 11월 30일 창립이후 22년 만에 최초로 여성회원을 한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하종화 회장은 앞으로 이순동 총재님의 패밀리투게더 회원증강 전략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위성클럽을 만들고 더 많은 여성회원을 영입하여 서울창덕로타리클럽이 밝고 활기찬 모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회원 영입으로 품격을 높이는 서울상록로타리클럽

- 11월 23일(목) 서울클럽

서울상록로타리클럽(회장 박갑제)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11월23일(목) 오전 7시 30분에 서울클럽 지리산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회 시작 30분전에 클럽협의회에서 클럽 회장 및 역대회장, 위원장들이 모여 클럽현황과 금회기 목표, 계획 및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경석 총무님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현철 전 회장님께서 로타리 강령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박갑제 회장님께서 이순동 총재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패밀리 투게더” 지구운영 목표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서울상록로타리 클럽 회원, 부인 및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클럽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환영의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이순동 총재님께서 “패밀리 투게더”라는 표어로 로타리 멤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로타리 멤버쉽을 계승하고 회원 증강과 여성회원의 활발한 영입에 힘써 더욱 더 품위있는 서울상록로타리가 되길 기원한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순동 총재님과 최진욱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클럽에 특별성금을 전달하셨으며 저희 클럽에서는 답례로 와인을 준비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2명의 신입회원의 뱃지 전달식이 있었으며 신입회원의 클럽을 위한 포부와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의미 있고 성공적인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마쳤습니다.

지역기반 클럽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서울마포로타리클럽,

양원주부학교 학생들에게 지구보조금 장학금 100만원 전달

- 11월 27일(월) 서울가든호텔

서울마포로타리클럽(회장 윤성주)은 11월 27일(월) 오전 7시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를 개최하였다. 주회 전 이순동 총재와 함께 클럽협의회를 개최하여 클럽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총재공식방문을 환영하는 이선재 전회장의 환영사를 통하여 마포로타리에 대한 그간의 지원활동에 감사말씀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마포로타리는 6대초점 분야 중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평생교육기관인 양원주부학교학생들에게 지구보조금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공식방문 연설을 통해 이순동 총재는 마포구 지역기반의 로타리클럽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마포 로타리클럽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마포구 지역사회의 훌륭한 분들을 적극 회원으로 영입하여 주시고, 위성클럽 창립으로 클럽이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크리스찬들로만 구성된 한국 유일의 클럽,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

- 11월 29일(수) 여전도회관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은 11월 29일(수), 오전 7시,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여전도회관 지하 1층 종려나무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님은 패밀리 투게더를 모토로 삼는 이번 회기에 가족, 지인 등을 영입하는 등 회원 주위의 분들을 영입함으로써 회원증강에 힘써 더욱 더 견고한 로타리클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회를 마치고 이순동 총재님과 이시훈 2지역 대표 그리고 역대회장과 이사,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럽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순동 총재는 재단기여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와 회원증강에 힘써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한 임원들은 로타리의 봉사활동이 금전적인 것을 넘어 몸으로 봉사하는 실질적인 면이 강조되기를 원하며, 총재님과 지역대표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각 클럽의 부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넘쳐났던 서울인유로타리클럽 공식방문

- 11월 30일(목) 삼원가든 본점

서울인유로타리클럽(회장 정한용)의 11월 오찬모임은 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의 공식방문으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21명이 참석한 이번 총재공식방문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인유로타리클럽의 역사와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유로타리안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 희망찬 말씀들이 오고 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한국 로타리 90주년에 대한 말씀, 로타리안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Family Together를 통한 회원 증강에 대한 이순동 총재님의 연설이 매우 기억에 남았습니다. 방문 기념품으로는 총재님과 지역대표님께서 성금을 전달해 주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동방사회복지회의 영유아와 소망의집의 장애우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소 쌀쌀해지는 초겨울 길목, 공기는 차지만 햇살은 좋았던 한 낮, 각자의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갖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늘푸른로타리클럽,
“Family Together” 운동에 동참, 가족 중심 위성클럽 창립 추진

- 11월 30일 한식당 달개비

서울늘푸른로타리클럽(회장 한백현)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7시 시청 부근에 있는 달개비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님의 공식 방문 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회는 이순동 총재님과 송창섭 8지역 대표님 그리고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클럽의 현황에 대해 클럽회장이 보고하고 클럽의 현안사항 및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총재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총재님께서 로타리클럽의 미래와 “Family Together” 운동의 취지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늘푸른 로타리클럽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가족 회원을 중심으로 위성클럽의 창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원 영입 부진으로 클럽 운영상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족회원들의 영입을 계기로 다시 푸르게 도약할 수 있는 클럽으로 부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재님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주회를 마쳤습니다.
총재님의 방문에 다시 한 번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서울늘푸른RC 회장 한백현

가면파티로 더 특별했던 서울아미로타리클럽

- 12월 1일(금) 여의도 글래드호텔

서울아미로타리클럽(회장 하양호)은 지난 12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와 송년회를 겸해 진행하였다.
이순동 총재는 지나온 아미클럽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치하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증강을 통해 더욱 더 활발한 클럽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은 신입회원 안병열, 이인규 회원에게 뱃지를 직접 달아주시며 앞으로 로타리안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하였다.
총재공식방문을 마치고 서울아미RC 회원들은 하양호 회장께서 직접 준비하신 가면을 쓰고 특별한 송년회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지역기반 클럽의 모범, 서울성동로타리클럽 활발한 부인회 활동을 위성클럽 창립으로!

- 12월 4일(월) 리베라호텔 2층(헤라룸)

서울성동로타리클럽(회장 이윤택)은 지난 12월 4일(월)오후 6시 리베라호텔 2층 헤라룸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겸 2017년 송년의 밤 그리고 2017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식방문에 앞서 5시 30분부터는 클럽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송년주회 칵테일을 진행하고, 6시 30분부터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겸한 2017년 송년주회인 동시에 2017년 2학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께서는 서울성동로타리클럽은 3650지구에서 보기 드문 성동구 지역사회기반의 클럽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성동구 관내 어르신들께 삼계탕 봉사, 추석 선물 세트 전달과 설 명절 떡국 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치하했다.

또한 서울성동로타리클럽의 활성화되어 있는 부인회를 이번 회기에 위성클럽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2017년 2학기 대학생 4명과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장학생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울강북로타리클럽, 지구 회원 3천명 시대 영광 재현을!

- 12월 5일(화) 명동 퍼시픽호텔

서울강북로타리클럽(회장 조성희)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12월 5일(화)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순동 총재께서는 이렇게 추운 이른 아침에 주회 참석하는 열정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못 할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회원증강이 되어야 기금이 마련되고 기금이 마련 되야 봉사 할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지구 회원 3천명 시대를 앞장섰던 서울강북로타리클럽의 영광을 재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위성클럽 증강을 먼저 하면서 정회원으로 영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PHF와 EREY 성과에 치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강북로타리클럽은 총재님 말씀에 부응하여 위성클럽과 정회원 증강에 적극 노력하고 참여하자고 전 회원들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립 30년을 맞는 '서울신라로타리클럽'이 공감한 로타리안의 책무

- 12월 6일(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서울신라로타리클럽(회장 박성호)은 12월 6일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키친'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가졌다.
먼저 개최된 협의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주회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박성호 회장의 환영사와 이순동 총재의 연설은 앞으로 우리 클럽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주었으며 로타리안으로서의 책무도 상기시켜주었다.
서울신라로타리클럽은 또한 'Family together'라는 총재님의 슬로건에 공감했고, 더 많은 회원증강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토론했다. 오고 가는 덕담과 스피치 속에 주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울장안 · 서울장원로타리클럽 합동 공식방문, 3650지구 스마트폰 신규 어플, 즉석에서 적극 가입

- 12월 6일(수) 서울클럽 한라산룸

지난 12월 6일(수) 12:00 서울클럽 2층 한라산룸에서 서울장안로타리클럽 (회장 오규섭)과 서울장원로타리클럽 (회장 양규철)의 합동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시30분 부터 개최된 클럽협의회에서는 양 클럽의 현황과 회원증강, PHF 에 관한 목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최진욱 사무총장이 안종원 7지역대표를 대신하여 참석하여,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스마트폰 어플을 소개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서울장안, 장원로타리클럽의 많은 회원들이 즉석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20여년 역사의 중견클럽들이 서울장안, 서울장원 두 클럽이 2017-18년도 지구 슬로건인 「Family Together」와 위성클럽 창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3650지구 회원 수 2,500명 달성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안암로타리클럽, 위성클럽 창립으로 과거 영광 재현 당부

- 12월 7일(목)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안암로타리클럽(회장 박범종)은 지난 12월7일(목) 12시 롯데호텔 36층(아스트룸)에서 이순동 총재와 서창우 3지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식방문 주회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께서는 총재연설을 통해 국제로타리 회장의 테마 설명과 동향을 알려주고, 지구운영목표을 설명하는 동시에 클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과, 서울안암로타리클럽은 고려대를 중심으로 창립되었지만, 최근 회원증강이 어려워진 원인과 위성클럽 창립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전략과 함께 로타리 재단의 기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